

구자열 “미래생존 R&D에 달렸다, CEO가 직접 나서라”

(LS그룹 회장)

LS T-페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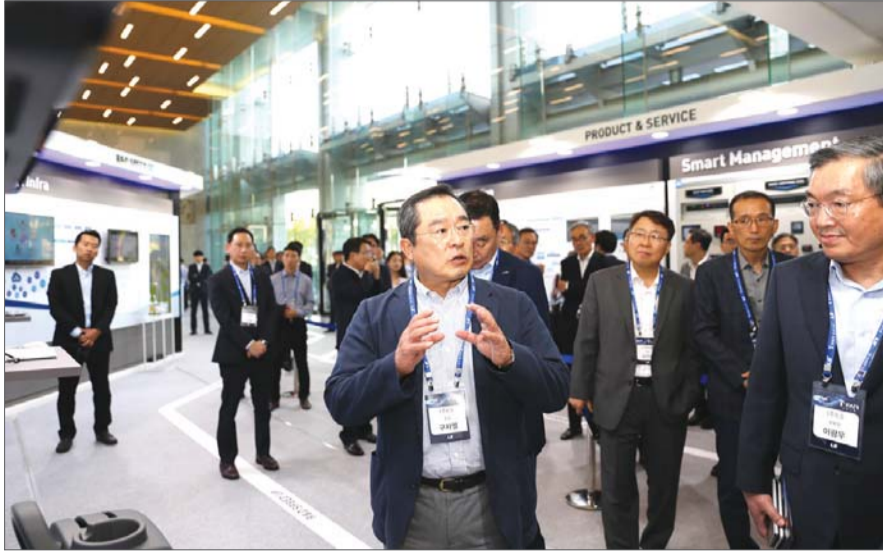
연구원 400여명과 한해 성과 공유 효율·만족도 높은 운영방식 찾아야

LS그룹은 안양LS타워에서 그룹의 기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연구개발 성과공유회 'LS T-페어 2018'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T-페어는 LS 창립 이후 그룹 차원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구자열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계열사 CEO,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연구원 400여 명이 참석, 한해동안 이룬 R&D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과제 발표와 시상식 등을 가졌다.

특히 올해 안양 LS타워 1층 로비에서는 LS그룹이 지난해부터 각 사별로 본격



지난 17일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LSE타워에서 열린 'T-Fair 2018'에 참가해 그룹의 미래 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나열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LS그룹

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미래 기술들을 전시해 주목을 이끌었다. LS전선은 생산 제품에 IoT를 적용해 실시간 위치, 재고, 도난 여부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LS산전은 소비자들

이 실시간 태양광과 ESS 사용 현황 및 제품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LS엠트론은 자율 주행 트랙터 및 농업용 드론 등 스마트 농업 솔루션 등의 기술을 각각 전시했다.

이는 구자열 회장이 2015년부터 'R&D 스피드 업'과 '디지털 전환'을 그룹의 연구개발 및 미래 준비 전략으로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LS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디지털 디자인, 3D프린팅, 가상현실 등을 설계와 개발, 검증 단계 등에 적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변혁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R&D 베스트 어워드'에는 LS전선의 '유럽향 광케이블 신제품 개발 및 솔루션' 과제를 비롯한 제조 분야 5개와 LS-니꼬동제련의 '용매 추출을 통한 귀금속 제품화 기술' 등 프로세스 분야 3개를 포함한 총 8개 회사의 연구성과가 선정됐다.

구자열 회장은 "T-페어의 전시장에 각사의 디지털 변혁을 향한 '작은 성공관행'들을 보며 우리 LS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고 느껴 흐뭇했다"며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구 회장은 미국 워싱턴대 올린 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포춘 500대 기업 중 40%가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예로 들며 "우리 LS가 생존의 40% 안에 속할지 아닐지의 여부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발판하고 새롭게 창출하는 R&D 연구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CTO뿐만이 아니라 CEO가 직접 나서 스마트한 사고로 전환하고 그러한 변화를 직원들과 조직에 빠르게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략 수립의 비중보다는 운영의 민첩성과 서비스 차별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LS도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서비스를 접목해 운영단계에서 IT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가장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운영방식을 찾아내어 거꾸로 이를 민첩하게 실현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R&D 프로세스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이 공기질 관리 토탈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삼성-LG 어깨 나란히 공기청정 솔루션 전시

삼성-LG '에어페어 2018'

삼성전자 미세먼지 관리 라인업 제안 LG전자 가정 공기질 관리 솔루션 선택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에어페어 2018 - 미세먼지 및 공기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각자 공기청정 솔루션을 전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집·사무실·학교 등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부스를 구성하고 각 공간에 따라 미세먼지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제안했다.

침실·거실·자녀방으로 구성된 가정에서는 삼성 큐브를 공간과 상황에 따라 분리·결합해 배치하고, 거실에는 면적에 따라 3방향 입체 청정의 블루스카이 7000과 인공지능 청정기능이 적용된 무풍에어컨 등을 전시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아기방에는 청정가습 기능이 더해진 블루스카이 6000을 설치하고, 공간에 따라 설치 가능한 전장형 무풍 1Way 카세트 등 시스템에어컨도 선보였다.

학교·사무실 등 B2B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용량 삼성 큐브, 벽걸이형 블루스카이 4000, 스탠드형 블루스카이 9000, 미세먼지 필터를 적용한 시스템에어컨 등도 소개했다. 또한 공기청정기, 에어컨 외

에도 미세먼지 이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류청정기, 건조기, 전기레인지도 전시해 미세먼지 관련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LG전자는 대규모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공기청정기부터 가정용·시스템 에어컨, 미세먼지 관리 가전, 각종 센서에 이르기까지 공기질 관리 토탈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공기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기기인 LG 센서허브도 처음 공개했다.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와 LED조명을 통해 실내 공기질 정보와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LG 스마트 가전을 제어한다. 실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리포트도 제공한다.

우선 홈 청정 컬렉션은 거실과 공부방을 중심으로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360도 흡입 구조로 균일하게 공기를 정화하고 클린부스터가 깨끗한 공기를 더 멀리까지 빠르게 보내주는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냉방과 제습은 물론 뛰어난 공기청정 성능과 인공지능 기술로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난 휘센 에어컨, 센서를 기반으로 한 공기질 분석 컨설팅 서비스, 트롬 건조기, 트롬 스타일러, 코드제로 A9, 인공지능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등 집안 공기질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할인은 간편하고, 보장은 든든해야 그게 진짜 건강보험

BMI 지수, 비흡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할인되니까!

*표준체 중 BMI수치(Kg/㎡)가 20.0이상 25.0미만이고, 1년이상 비흡연자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은 든든하니까!

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 고지우량체로 가입 후 흡연상태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가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제지금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진단보험금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각 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생명보험협회의필 제 2018-2409호(2018.6.5)